

‘슬로슬로 발효마을축제’ 7~8일 섬진강 마실휴양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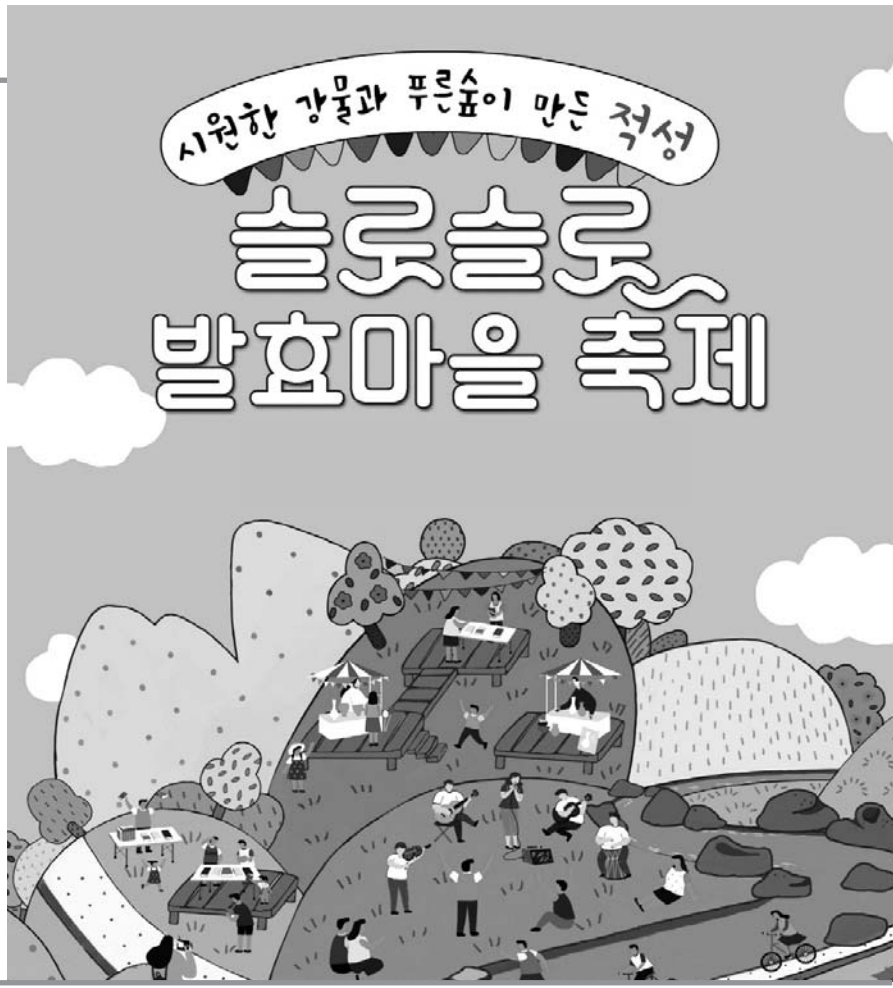
# “건강한 슬로푸드’ 순창으로 오세요”

순창군이 섬진강 마실 휴양단지에서 7~8일 이틀간 마을 중심형 축제인 ‘제1회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 축제’를 연다. ‘시원한 강물과 푸른 숲이 만든 적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전북도가 주관한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군은 ‘건강한 슬로푸드, 행복한 삶’이라는 테마에 맞춰 축제 장소를 섬진강 마실 휴양단지로 선정했다.

적성 슬로 공동체가 운영하는 축제장 곳곳에는 건강식과 친환경 먹거리 부스를 준비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계획이다. 특히 축제장 한곳에 발효체험교육장을 마련, 가족 단위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면서 발효 음식의 우수성도 몸소 느낄 기회도 제공한다. 여기에 2016년 100억원대로 4배 이상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자연 발효

식소 시장에 초점을 맞춰 과일식초 만들기 등으로 축제의 재미와 지역 특화산업 홍보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제장 맞은편에 위치한 용골산 치유의 숲에서는 명상을 통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마련된다. 용골산 치유의 숲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진강 천리길 요강 바위 관람은 해설사와 함께하며, 요강 바위에 내려오는 전설과 사연을 들을 수 있다. 최훈 적성슬로공동체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우리 지역만이 가진 특성을 200% 활용했다”면서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가족들과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뛰어놀다 갈 수 있는 축제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발효체험	슬로푸드	생태자연	슬로장터
과일식초 만들기	슬로푸드	반딧불 이야기 탐방	농특산물 전시판매
전통주/수제맥주	식재료 전시	전북천리길 요강바위 산책	슬로푸드 먹거리
발효소스 전시	연잎차 시음	용골산 치유의 숲 명상 체험	노천 슬로카페
식초활용 요리전시	발효차 시음	700년 야생차 숲 산책	



## 보성읍에 도시가스 공급 국무회의 통과... 2023년 예정

보성군은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전남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장흥에서 보성, 벌교(58km)를 잇는 가스배관 주관로 사업으로 국비 1100여억원이 투입된다. 보성군은 2011년부터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예비타당성 용역을 자진 철회하면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다. 민선 7기 들어 김철우 군수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보성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나섰다.

보성군은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연말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3년 완료할 예정이다. 보성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가구당 연료비를 연간 80여만원가량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구는 2000 세대로 연간 16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8년간 지지부진했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한국가스공사 등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소외지역의 생활 밀착형 SOC 사업에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선정돼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성=김홍백 기자 kyb@

## 남원 광한루원, 내일 단오절 무료 개방

남원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이 단오절(6월7일)을 맞아 무료로 개방된다. 남원시는 광한루 건립 600주년과 동몽과 춘향이 만난 날인 단오절을 기념해 7일 광한루원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객은 입장료 3000원(성인)을 지불하지 않아도 광한루원을 입장할 수 있다. 시는 광한루원의 무료개방과 함께 풍성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시는 춘향전의 한 대목인 신관 사또 부임 장면을 익살스럽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신관사또 부임행차 야간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공연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마다 펼쳐진다. 또 남원장곡인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은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객을 맞는다. 그의 광한루원에서는 매주 화요일 남원 시립농악단의 ‘흥겨운 농악한마당’이, 수요일 판소리 공연인 ‘광한루의 오후’, 목·금요일 판소리를 직접 배우는 ‘춘향가 한 대목’과 관광객과 함께하는 국악 퓨전국악 ‘광한루 Alive-!’가 열린다. 광한루원에서는 매일 특별한 공연과 매주 이벤트 공연을 선보이며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푸르름이 가득한 낮과 선선한 바람이 상쾌한 밤이 보너스인 6월 광한루에서 느껴보자”면서 “여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 얼큰·화끈·개운... 군산, 짬뽕 특화거리 명소화 속도낸다

사업비 15억 투입... 근대역사박물관 인근 12개 업소 선정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짬뽕 특화거리 조성 명소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확보한 국가예산 7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역사성과 관광지 연계 등을 고려해 근대역사박물관 인근 ‘동령길’과 ‘장미길’을 선정했다.

시는 짬뽕특화거리에 입점할 영업자를 공모해 빈해원을 비롯한 기존업소 3개소와 신규 9개소 등 총 12개소 업소를 선정했다. 신규 입점자들은 현재 관내 짬뽕을 취급하는 업소 영업자가 대다수이며, 이 중에는 과거 중화요리 취급 경험이 있는 창업 예정자도 포함돼 있다. 현재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짬뽕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육성전략 및 브랜드명 등 개발’의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오는

7월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거리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입점 업소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및 위생서비스 등 개선사업 지원, 특화거리 내 입점 영업소 간판정비, 상수도 사용자 감면지원(조례제정 이후), 식재료 공동구매 구축 운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오숙자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짬뽕’을 활용한 특화거리를 조성해 불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한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두번째 ‘농촌영화제’ 20일 고창서 개막

국내 농어촌 특화 영화제인 ‘제2회 농촌영화제’가 오는 20일 고창에서 개막한다. 이번 영화제는 ‘이것이 농촌영화다’를 주제로 고창북분자클러스터 일원에서 23일까지 진행된다. 영화제에서는 농촌 소재의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감자와 옥수수를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함이 더해진다. 또 특별상영으로 한·중·일 근대 농촌 풍경을 담은 영화가 상영되면서 아시아 대표 농촌영화제로의 기틀을 다진다. 영화제에서는 지역 농민들이 참여해 만

들어진 영화가 지난해에 이어 상영되며 관람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과 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농촌영화제는 ‘농촌스러움’의 정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향후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연계하고, 나아가 새로운 농생명 문화산업으로 육성을 통해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농촌영화제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재향군인회, 군 입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교육 정읍시재향군인회(회장 윤재동)는 지난 4일 전북과학대학교에서 군 입영자를 대상으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오세종·전삼식씨 등 정읍 지역 예비군지휘관들이 강사로 나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병무행정 안내, 군 복무자세 등에 대해 교육했다. <정읍시재향군인회 제공>

## 강진 쌀귀리 수확 한창

100여농가 18억원 소득 예상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쌀귀리의 주산지인 강진에서 쌀귀리 수확이 한창이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은 온화한 기상여건을 갖춰 추위에 약한 쌀귀리의 재배 적지다. 농업기술센터는 2012년부터 꾸준히 쌀귀리 재배 기술을 보급해오고 있다. 강진 쌀귀리는 전국 최고 품질·최대 면적의 전진지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100여 농가가 300ha의 면적에 귀리를 재배해 현재 수확 중이다. 쌀귀리는 보리보다 1.5배 소득이 높은 고소득 월동작물로 올해 약 18억원의 소득을 예상한다. 강진군은 쌀귀리를 이용한 가공 제품을 개발해 더 많은 소비자가 다양한 형태로 쌀귀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귀리는 쌀의 2배 정도 단백질 함량을 가진 곡물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돼 포만감이 높아 우리 몸속 숙변을 제거하고 장 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체중감소 효과가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될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